

# 통합돌봄서비스 '올해도 빈틈없이'

### 전주시,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6개 수행기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협약 체결

전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17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김형석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 박준홍 덕진지역자활센터장, 광병현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주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장, 양영식 전주시물리치료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6개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들은 시와 협업을 바탕으로 △주거(주거환경 개선사업, 낙상에방작업치료사업, 통합돌봄거점공간운영) △일상생활·돌봄지원(영양더하기사업, 틈새가사 및 돌봄, 응급간병서비스), △보건의료(방문운동지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기구축한 민·관 협력형 돌봄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작년 3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주시는 17일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전주지역자활센터, 덕진지역자활센터,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전주시물리치료사회 등 6개 기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후 지난 7월부터 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생활 지원, 주거지원 등을 포괄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김용삼 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모든 수행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공동체 구현을 통해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 다송조경, 전주시에 취약계층 위한 백미 100포 전달

(유)다송조경(대표 양태원)은 17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300만원 상당의 백미 100포(10Kg)를 전달했다.

이날 후원한 백미 100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

계층 1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태원 (유)다송조경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한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유)다송조경은 17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300만 원 상당의 백미 100포(10Kg)를 전달했다.

이날 후원한 백미 100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

계층 1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태원 (유)다송조경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한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유)다송조경에 감사 드린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유)다송조경은 그간 전주 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학비) 지원, 백미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 만 60세 이상 모든 시민에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 전주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8만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치매 검진을 미뤘던 시민들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만60세 이상 모든 전주시민들에게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별검사란 혈액검사와 뇌영상촬영 등을 통해 치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로, 선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고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자에게 실시한다.

기존 치매안심센터나 관내 협약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진단검사와는 달리 감별검사의 경우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는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전주 시민에게 1인당 최대 8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전주지역 33개 협약의료기

관중 감별검사를 실시하는 12개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지원 받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네배네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등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치매 진단자에 대해서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용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조기검진 및 감별검사비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3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일간지 기자 항소심도 집유

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작선거법 위반(권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2일 개시

### 전주시·전북은행·전북신보, 올해 총 700억 규모 금융지원 2023년에 지원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서 제외

전주시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2일부터 2024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과 협력해 작년보다 올해까지 2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계획했으나, 지속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전북은행과 함께 36억원을 추가 출연해 500억원을 확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규모는 지원 예정이던 200억원에 확대분을 포함해 총 7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

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이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 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원, 소기업 1.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3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88%(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수준으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고객부담

금리는 연 2.88% 수준이다. 상담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장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사업장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여전히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 상황 악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연초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강한 경제도시로 한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고창

##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겨울(선운사, 동림저수지)

